

<동정자료>

취임 첫 날 사고현장 찾은 손명수 차관, “안전의 답은 현장에” 상주-영천 살얼음 사고현장 찾아 설 대비 안전사고 취약현장 특별점검 강조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취임 첫 날인 17일(금), 최근 도로 살얼음 사고가 발생한 상주-영천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취약관리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설대책을 점검하였다.
 - 현장점검 중 도로순찰원, 제설작업자 등을 격려하고, “특히, 도로 교통 이용객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표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현장점검을 마친 후에는 부산국토청장, 도로투자지원과장, 도로운영과장, 상주영천고속도로(주) 대표이사가 참석한 안전간담회를 주재하였다.
 - 손 차관은 “최근 도로살얼음 사고 등이 크게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천의지를 높여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특별히 국토관리청장,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직접 안전을 챙겨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이와 함께, “도로미끄럼 사고 등 겨울철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부분”이라며
 - “도로살얼음 사고 외에도 발생 가능한 안전위협사례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방대책을 사전에 마련·시행하도록 당부하고, 안전 취약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제설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2020. 1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